

# 아주 먼 옛날 추억의 연금술

첫 시집, 혹은 변치 않는 내 꿈 「사물의 꿈」

정현중

시인 · 연세대 국문과 교수

나한테는 내 첫시집 「사물의 꿈」이 없다. 5백부 한정판 중에서 몇 권이 책방으로 가고 몇 권이 증정본으로 나갔는지 기억에 없지만, 첫시집이 으레 그렇듯이, 초년병 신고하는 기분으로 돌떡 돌리듯 여러 사람들한테 돌린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지은이가 몇 권 확보해놓지 않았을리가 없을 텐데도 하여간 지금 나한테는 그 시집이 없다. 자기의 처녀시집을 자기가 갖고 있지 않다는 건 나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인데, 몇 권 확보해놓았던 것을 쥐야 할 사람을 빠뜨리고 안줬다든지 해서 나중에 주고, 또 꼭 갖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도 주었음직하니 책이 하나씩 없어진 건 당연하다 하겠으나, 어째서 마지막 한 권까지 내주었는지 모를 일이다.

책이 모두 없어진 기간이 얼마동안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다 없어지자 나는 여기저기 책방을 둘러 거기 그 시집이 있으면 너무 반가워하며 샀는데, 그것도 서너 권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도 조만간 다 없어졌는데, 애써서 찾아낸 책을 왜 또 마지막 한권까지 없었는지 그 또한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몇 년인가 뒤에 그 시집이 또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염치를 무릅쓰고 당시 민음사 상무로 계시던 분께 간곡히 말씀을 드려, 내가 드린 시집을 도로 가져온 일이 있는데, 그 시집이 어디로 팔려갔는지는 기억이 없고 그분께 죄송했던 느낌만 남아 있다. 실은, 지금 내 책상 위에 「사물의 꿈」이, 곁을 짠 투명한 빠다종이는 찢어진 채 놓여 있는데, 이젠 또 언젠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김병익한테서 빌려온 것이다. 그는 필경 자기 책을 내가 빌려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을 텐데(적어도 나는 그가 그걸 잊어버렸기를 바라고 있는데) 여기서 그만 본의 아니게 상기시키고 말았다. 원래 책 빌려간 건 되돌려주기 어려운 법이니, 이런 때는 관례라는 게 참 예쁘장한 게 아닐 수 없다. 하긴 나도 그런 식으로 책을 많이 잃어버렸으니,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예쁘장한 관례라고 해도 좋으리라.

내가 내 첫시집을 갖고 있지 않은 데 대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최근까지도 그 책을 찾는 전화가 필자한테 온 일이 있지만, 절판이 된 뒤 드문드문 그런 전화가 오면, 그 뒤(1974년)에 역시 민음사에서 오늘의

- 지금 그 첫시집을 바라보니
- 아주 멀게 느껴지는 옛날이
- 문자 그대로 꿈결처럼 피어오른다.
- 그건 물론 추억의 연금술
- 덕분이기도 하고, 그 시집의 작품들이
- 그게 씌어진 동안의 스산한 삶과
- 포개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 또한 시집의 체제가 요새의
- 규격화된 모양이 아니라는 점하고도
- 조금은 상관이 있지 않을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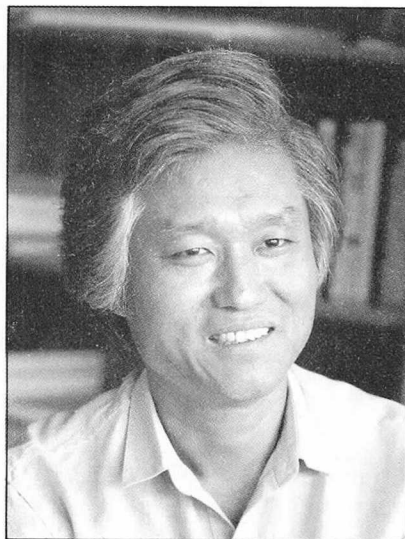
시인총서의 하나로 나온 「고통의 祝祭」 속에 그 시집의 작품이 다 들어 있다고 말하곤 했다. 「고통의 祝祭」는 「사물의 꿈」의 작품 전부에다가 7편의 작품을 덧붙여서 낸 것이기 때문이다.

**‘몰아적’ 우정으로 탄생한 첫시집**

「사물의 꿈」은 1972년 5월에 민음사에서 나왔다. 그때는 인세를 받으며 시집을 낸 시절이 아니라 자비로 시집을 내는 시절이었는데, 아주 가난했던 터라 제돈으로 책을 낸다는 건 엄두도 나지 않는 일이었지만, 나한테는 시집을 내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때 우리는 청진동에 있는 허름한 건물 4층인가에 세들어 있었던 초기 민음사 사무실에 드나들고 있었다. 그때는 더 그랬겠지만, 출판사 사무실이 글쟁이들한테 주는 친근감이라고 할까 친화력은 아주 각별한 것이어서 농부가 밭에서 느낌직하고 어부가 바다에서 느낌직한 무슨 밀착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데다가 모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친구나 선배였으니 자주 드나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떻든 그 무렵, 김현의 발의로 친구들이 돈을 거두어 내 시집을 내주기로 모의를 했던 모양이다. 1979년에 내가 기억을 더듬어 쓴 어떤 연보를 보면 그때 참여한 친구는 김병익, 김주연, 김치수, 김현, 이청준, 홍성원, 황동규, 황인철 그리고 고은 선배 등이다. 해설은 김주연이 썼고 장정은 고등학교때 시를 잘 썼고 지금



서울신문논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중환이 했다. 김현은 마치 자기 책을 내는 것처럼 신경을 써 체제에서 책 제목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는 데가 없었는데, 제목을 필로 하겠느냐고 묻길래 「사물의 꿈」으로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썩 맘에 들어하던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뿐만 아니라 이 섬 출신의 恒心の 화신은 책이 나온 뒤 출판기념회까지 계획을 해서 당시 서울신문 지하에 있었던 프레스 쌀롱에서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사회도 자기가 했다. 나는 물론 축스러워서 무슨 출판기념회냐고 사양을 했었지만 그의 열심을 이길 수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더 젊었던 시절의 그 沒我的 우정과 열심은—그게 꼭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참으로 고맙고 이쁜 게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儀式的 행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그게 타고난 성질인지 살면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몰아적’이라는 말이 크게 과장된 건 아니지 않을까 한다.

**변치 않는 내 꿈, ‘사물의 꿈’**

지금 그 첫시집을 바라보니 아주 멀게 느껴지는 옛날이 문자 그대로 꿈결처럼 피어오른다. 그건 물론 추억의 연금술 덕분이기도 하고, 그 시집의 작품들이 그게 씌어진 동안의 스산한 삶과 포개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시집의 체제가 요새의 규격화된 모양이 아니라는 점하고도 조금은 상관이 있지 않을까 한다.

벌써부터 느끼고 있었지만, 추천작품들을 비롯해서 초기의 작품 여러 편에서 쓸데없이 한자를 많이 쓰고 있다.(조만간 나올 시선집 「섬」에서는 그런 한자 어휘들을 한글로 고쳤다) 어설픈 표현들도 더러 보이는데, 설익은 시절의 흠일 것이다.

‘사물의 꿈’이 뜻하는 바에 대해서는—그건 물론 작품의 제목이니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일 테지만—몇 차례 썼으니 되풀이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변치 않는 내 꿈이라는 얘기만을 덧붙이려고 한다. 그리고 시를 위해서, 또 우리 앞에 남은 날들을 위해서 파블로 네루다의 「책에 붙이는 노래」라는 작품의 일부를 읽으면서 이 글을 끝낼까 한다.

내가 책을 덮을 때  
나는 삶을 연다.

(.....)

책이여, 나를 놓아다오  
나는 여러 권의 책으로  
뒤덮이지 않으려다,  
나는 작품집에서  
나오지 않았고,  
내 시들은  
시들을 먹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극적인 일들을  
삼켰고  
험악한 날씨가 컸으며,  
땅과 사람들한테서  
음식을 얻었다.  
신발에는 먼지가 낀 채  
나는 가는 중이다  
신화에서 자유롭게 :  
책들은 서가로 보내자,  
나는 거리로 나가려다.  
나는 삶 자체에서  
삶을 배웠고,  
단 한 번의 키스에서 사랑을 배웠으며  
사람들과 함께 싸우고  
그들의 말을 내 노래 속에서 말하며  
그들과 더불어 산 거 말고는  
누구한테 어떤 것도 가르칠 수 없었다.